

남원시 인월면, '흥부골 달맞이 행사' 24일 개최

남원시 인월면(면장 황도연)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5시, 면립천 둔치 행사장에서 제23회 흥부골 달맞이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액운을 날려 보내고 올 한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민족의 고유한 세시풍속과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정월 대보름 행사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월면의 달맞이 행사는 고려 우왕 6년(1380년) 삼도 도원수 이성계 장군이 그믐달 기도를 통해 보름달을 끌어올려 왜장 아지발도를 막아낸 황산대첩 전승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행사의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주요 행사로는 전통 터울림과 제례, 지신밟기 등의 식성 행사와 도립국악원의 국악 공연(관현악, 창극, 무용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매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기대하고 매료되는 인월 자율방범대(대장 김종업)가 직접 만든 높이 20m, 지름 11m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 및 소원 소지(연 좌우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녁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을 위해 오곡밥과 부럼 등의 맛있는 정월 대보름 음식 나누기 행사도 같이 진행하며, 달맞이 행사는 남녀 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황도연 인월면장은 "흥부골 달맞이 행사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곳에서 주민 주도로 매년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 행사"라며, "매년 1,000명 이상이 오지 않고 찾아 주시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정월 대보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무주소방서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촌지역 거주중인 고령층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최근 농촌지역 주택화재로 고령층 노인 화재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주소방서 전직원은 7일간 6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 단 교육 및 관내 마을 전체 151개의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164부를 시인성이 좋은곳에 부착, 전단지 4500부를 배부하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 금지 △분여발식 전 기온센트 사용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손주 대학 등록금 대신 지역 학생들 위해”

임실군, 80대 노총택·송정순 어르신 부부 장학금 기탁 사연 화제... 500만원 쾌척

“12명의 손주들 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의 등록금을 줄까 하다가, 임실에 살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탁했어요.”

최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노총택(85)·송정순(83) 어르신 부부의 기탁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임실을 갈마리에 사는 토박이 농사꾼인 노씨는 슬하에 5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손주들만 12명이 된다.

그간 6남매의 자녀가 준 용돈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보상금 등으로 모은 500만원을 손주들의 대학 입학금에 보탬이 고민하다가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한 노씨의 사연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노씨는 “서른두 살에 홀로되신 어머니 밑에서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며 “팔십 평생 살아오는 내내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언젠가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꿈과 배움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기탁 사연을 털어놨다.

노씨는 2000명의 농사를 지으며 6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는 “자신은 형편상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만은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히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노씨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데 소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는 “어르신의 기탁 사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정말 소중한 기탁금으로, 장학금 기탁 확산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임실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탁금으로, 장학금 기탁 확산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임실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는 연초 장학금 기탁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임실N달기공선출하회(회장 김경보) 350만원,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회장 정현옥) 200만원, 성수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옥순) 100만원, 임실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왕동열) 250만원, (유)강산건설 강산석 대표 100만원, 오수면 이용철 씨가 100만원을 임실군을 방문해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77대 김홍훈 장수경찰서장 취임...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청정의 고장인 장수군에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장수경찰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

지난 5일 제77대 장수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홍훈(53) 총경의 일성이다.

김홍훈 총경은 전북 전주시 출생으로 동양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9기로 졸업했다.

1993년 경위로 임직해 2009년 경정으로 승진 후 서울청 작전계장, 서울청 의경계장, 서울청 경호계장, 서울청 치안지도관의 보직을 거쳐 2020년 총경으로 승진 후 진안경찰서

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뒤 장수경찰서장에 부임하게 되었다.

김홍훈 서장은 “장수군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먼저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후 그 행복을 군민에게 드리면 기쁨과 행복이 두배로 될 것이다”며 “항상 웃음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는 장수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알림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 장소: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상: 대학생·일반성인 누구나, 모집기간: 2월 5일~23일, 문의: 063-285-6676 · 231-6669 · 010-07304-5665.



무주양수발전소, 두부콩나물세트 후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에서는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에서 후원한 설 명절 맞이 ‘두부콩나물세트’를 무주읍, 적상면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전달했다.

후원된 명절선물은 무주읍과 적상면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안내해 센터에서 직접 배부했다.

해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명절선물을 무주군가족센터에 후원해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경찰서, 설맞이 결혼이주여성 초청 행복 나눔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에서는 안보지원협의회(회장 임주섭)와 함께 지난 5일 순창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초청 ‘설 명절맞이’ 행복 나눔 위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순창경찰서와 안보지원협의회에서 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20명을 초청, 10종 삼백만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며 낯선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경찰서, 설 명절 재향군인회원 가정 위문

지난 5일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경위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남기재 서장은 경무과장, 경무계장 및 환경택 경위회장과 함께 무주 관내 어려움에 처한 경위회 회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소정의 금일봉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기재 경찰서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현대전력, 순창군육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현대전력(대표 신승우)이 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에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읍에 소재한 현대전력은 1992년에 설립된 전기공사 업체로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신승우 대표 아들 신용훈 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지역사회와 나눔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인재 양성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사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6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6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